

MOON, HAENG-SEOB

문행섭의  
제주바다展

---

2018. 3. 2<sup>FRI</sup> ~ 14<sup>WED</sup>

이아갤러리\_제2전시실

Opening 3. 3<sup>SAT</sup> pm 03:00

---

# 문행섭의 제주바다

## 추상적 미감으로 구현해 낸 제주바다의 인문적 서정

제주에서 나고 자란 문행섭은 바다와 함께 삶의 중요한 부분을 공유해 왔다. 제주바다가 품고 있는 역사성과 장소성, 이와 결부된 삶의 의미와 생태적 가치 탐색은 하나의 일상이 되었고 작가는 이를 인문적으로 해석하여 그만의 시각언어로 재현해 내곤 하였다. 이와 더불어 바다가 지닌 에너지의 파동과 이에 따른 형상적 변주는 화가 문행섭이 시각적으로 풀어내야 할 숙명적 과제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그가 늘 제주바다를 관찰하고 이를 추상성 짙은 독자적 조형언어로 재현해 낸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것이다.

문행섭의 제주바다는 이것이 지닌 생의 요소, 역사적 사실, 그리고 삶의 편린들에 대한 부단한 조형적 탐구와 인문적 성찰의 결과물이다. '형상의 새로운 해석'이라는 미적 욕망을 완곡하게 드러내면서 그리기와 지우기, 가필(加筆)과 감필(減筆)이 수없이 반복된 그의 화면은 지난한 노동의 과정을 화면의 추상적 기조로 은폐시키고 여기에 형상 이상의 가치를 드러냄으로써 제주바다가 내포한 땅의 의미를 함축한다. 이때의 화면은 최소의 대상적 특징만을 남긴 채 우리에게 제시되나 추상성의 이면에 드러난 형상성은 진정한 회화의 가치를 새삼 자각케 하는 독특한 마력을 풍긴다. 그리기에 결코 집착하지 않았으면서도 회화적 아우라가 살아 생동하고 풍경이 지닌 장엄함과 땅의 가치를 드러내 보이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러나 작가는 오랜 동안 이를 관찰하고 표현해 왔을 뿐 아니라 대상이 지닌 역사적·인문적 의미를 되새기면서 이를 풍경이상의 가치로 재현해 낸 것이다.

〈추자바다〉, 〈알작지바다〉, 〈구엄바다〉, 〈외돌개바다〉 등 작가가 2013-14년에 그린 그림은 여와 파도가 서로 충돌하거나 조화되면서 강한 에너지를 발산하거나 생명을 잉태하는 순간을 포착한 것이다. 그러나 작가는 이러한 순간적 인상을 표현하는데 그치지 않고 물과 돌, 흑과 백의 대비는 물론 파도의 유동에 따른 화면의 변주를 무채색조로 제어함으로써 보다 완곡하고 세련된 화면의 격조를 추구하고 있다. 반부감으로 포착된 제주바다는 특유의 강한 시각적 인상을 풍기면서 시간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밀물과 썰물의 조수차 보다는 특정한 바다가 지닌 자연적 경이로움과 변화를 시차없이 받아들이고 있다. 즉 작가는 특정한 장소로서의 제주바다를 초시간적, 혹은 항상성(恒常性)의 영역으로 끌어와 의미를 만들고 보편화 한다.

근래에 그린 〈사계바다〉, 〈김녕바다〉, 〈가문동바다〉 등은 인간의 시점으로 바다를 바라본 것이다. 단색조의 거친 화면에서 형상과 비형상을 구분하지 않고 대상을 여과해 내는 일은 결코 만만한 작업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작가는 오랜 동안 관찰해 온 바다의 형태적 속성과 이에 따른 작가 특유의 형태해석을 통하여 보기 드문 조형적 성과를 이루어 내고 있다. 파도는 여전히 굼뜰대고 돌은 자신의 존재가치를 각인시키며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 돌은 무생물에 불과하지만 여기에서는 인간의 생로병사와 희로애락이 축적된 세월이 가장 뚜렷이 각인된 사물이다. 굳건히 장소를 지키는 바위섬은 한시대의 존재와 부재를 가늠하는 증표이기도 한 것이다.

바다는 숙명적으로 항상 변화의 주기에 위치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작가는 여기에 장소성을 개입시켜 의미를 만들어 낸다. 주지하다시피 장소성이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 등 인간의 삶의 영역과 맞닿아 있는 부분이다. 사실 문행섭이 그려낸 대상들은 물과 돌, 그리고 대기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우리가 그의 화면에서 자연의 웅대함은 물론, 역사와 현실, 서사와 서정, 추상과 재현 등 현대미술의 다양한 요소와 의미를 읽어내는 이유는 화면이 지닌 실험적 성향 때문일 것이다. 작가는 결코 완성도를 추구하지 않는다. 바다 자체가 끊임없이 변화하는 생의 요소를 지니고 있듯이 그의 그림 역시 변화하는 생의 주기에 위치할 유기체적 요소를 지니고 있다. 그가 그림을 그리는 작업과정 뿐 아니라 완결된 작품에서도 이러한 특징은 두드러진다. 화면은 끊임없이 가필을 요구하고 대상은 여전히 강한 에너지를 내뿜으며 꿈틀댄다. 작가는 적절한 타임에 가필을 멈춤으로써 화면의 정태적(情態的) 완결성보다는 동태적(動態的) 생명성을 선호한다. 이는 그가 여전히 현대미술이 추구하는 방법론을 통하여 회화적 실험에 천착하는 한편 자연의 존재방식에 대한 최소한의 개입을 통하여 이의 생명성을 스스로 노출시키고자하는 겸손한 접근방식과 연관 되는 부분일 것이다.

- 이경모/미술평론가, 예술학 박사



외돌개바다  
한지에 혼합재료  
72x112cm  
2014



조천바다  
한지에 혼합재료  
135x105cm  
2017



도두바다  
한지에 혼합재료  
150x112cm  
2017



가문동바다  
한지에 혼합재료  
150x97cm  
2017



고산바다  
한지에 혼합재료  
150x112cm  
2017



용담바다  
한지에 혼합재료  
135x90cm  
2016





위미바다  
한지에 혼합재료  
110x89cm  
2016



성산바다  
한지에 혼합재료  
110x70cm  
2016



김녕바다  
한지에 혼합재료  
203x103cm  
2016



사계바다  
한지에 혼합재료  
134x80cm  
2016



하귀바다  
한지에 혼합재료  
197x108cm  
2015



추자바다  
한지에 혼합재료  
170x143cm  
2013



구엄바다  
한지에 혼합재료  
170x143cm  
2013

## 문행섭

Moon, Haeng-seob



-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원 회화과 졸업
-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미술교육과 및 동 교육대학원 졸업
- 개인전 10회 (제주, 서울)
- 남녕고등학교 미술교사

631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령로 55  
T. 064 717 6239 M. 010 4696 4320 E. mhs4320@hanmail.net

본 전시는 예술공간 이아 기획대관전으로 예술공간 이아의 지원을 받아 기획되었습니다.